

스쿨미투,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교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지역과 학교의 역할-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1. 스쿨미투- 아동·청소년 인권운동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현장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이다.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나도 고발한다, 당신과 연대한다'는 뜻의 #METOO #WITHYOU 모양으로 붙여 화답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고질적인 학교 내 아동학대 실태 고발이 들불처럼 이어졌다. 한국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인 동시에,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교육계의 자성은 요원하다.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하는 등 교육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2. 학교 현장의 실태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던 아동 인권침해를 고발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 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 위협과 소외와 조롱을 견디며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더디고 미흡한 조치로 공론화 당사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거나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아동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문제 해결의 결정적 주체인 학교가 은폐·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들의 절박하고 용기있는 목소리들을 교육당국이 얼마나 귀담아 응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전국지도(http://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를 제작해 온라인상에 공개해왔다. 2018년부터 공론화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겪는 언어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경기도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교명	학교성폭력 공론화 내용	검색어
경화여자중학교	"여자는 애 낳는 기계이다", "애새끼들이 뚫린 주둥아리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냐", "병신 같은 년", "짐승보다 못한 새끼들"	#경화여중_공론화
과천여자고등학교	"세월호 친구 곁으로 보내줘?", 세월호 뱃지 단 학생에게 "너 친구들 곁으로 보내줘?", "너희들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는 세월호 학생들처럼 앉혀놓아야 한다. 자꾸 뒤돌아서 얘기하면 목을 비틀어버린다", "신체검사 때 가슴둘레는 안 재냐, 너 때문에 황홀했다.", "처녀가 조용히 해야지." 수업 중 특정 학생을 향해 "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 했고 꼭 해보고 싶다.", 평소 예뻐하던 학생에게 작별 선물이라며 이마에 키스함.	#과천여고_막말_성희롱

대안여자중학교	"내 폐북에 여중생 띄치는 영상 있다. 찾아봐라. 재밌다.", "여자는 예쁘고 돈 많고 명 째야 야한다", "나는 다리 예쁜여자가 좋다. 너희는 다리가 왜이리 두껍냐", "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주면 잘잔다. 그래서 내 딸도 어렸을 때 가슴 주물러 재웠다.", "여자들은 맨날 다이어트해서 현혈도 못하는 불량품이다", "전임 학교에서 동료 여교사가 포인터사용이 서툴러 거꾸로 들어서 자기 아랫도리를 비쳤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여학생 가슴을 포인터로 가리킴,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한다", "후진국에서는 여자를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처벌 안 받는다", "너희들 속바지 입었냐. 뭘하러 입었냐, 맨 앞자리 책상에 달린 다리 가리개를 수업시간마다 들어와 치우라고 함, "나는 여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래서 온 거다"	#대안여중-교내성폭력
명륜여자중학교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섹시하네", "(정전기 설명하며) 엄마들이 치마입고 다닐 때, 속치마 안 입으면 몸매 라인이 다 드러난다",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 "(한자 편안할 '안' 설명하며) 여자가 집 안에 있어야 편안하지.", "여자가 다리 세우고 앉으면 추하다, 여자가 자면 추하다, 여자가 멍청하면 추하다, 여자가 멍청하면 남자 못 만나다"	#명륜여중-스쿨미투
백마중학교	"코만 좀 올리면 예쁘겠다", "애 못생겼잖아, 애랑 놀지 마", "어디서 공부도 못하는 게", "너는 코만 좀 올리고, 너는 살만 좀 빼면 진짜 예뻐 거 같다", "너네는 내가 안 때리는 거지, 못 때리는 게 아니야."	#백마중-스쿨미투
영신여자고등학교	"여기가 수원역 집향촌이나", '(생리하는 학생에게) "떡볶이 국물 흘리지 마라", "창녀같다", "너희 부모님은 50만원도 못 버시냐", "예전에는 학생들을 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건드려도 때린 것처럼 난리를 치고 말도 막 할 수가 없다", "너는 글러먹었다"	#수원영신여자고등학교-공론화
정발고등학교	"여자는 집에서 돈벌어오는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는 존재", "여자는 행동이 굵퍼서 안 될 놈들", "남자는 여자 하나 잘 견지려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자신의 설명을 한 번에 이해 못하면 "찌질이", "멍청한 새끼" 폭언, 성소수자혐오 발언 자제 부탁하는 학생에게 "아, 나는 근데 동성애에 반대해서"	#정발고-공론화
한광여자중·고등학교	"여고생은 항상 도발적이어야 한다.", "머리 긴 아이들이 자극적이고 섹시해서 좋다.", 영화 보자고 접근, 영화보며 허벅지 만지고, 껴안고 손에 키스. 같은 교사가 차안에서 다른 학생을 성추행함.	#한광미투

[표1] 경기도 지역 학교성폭력 고발 내용 중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2022. 3)

2019년 3월, 학교성폭력을 고발했던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이 학교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2차 가해 상황에 대해 다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이후 교육당국이 후속 조치를 얼마나 적절히 했는지 확인하고자 각 시도교육청에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학교명 및 관련정보를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로 답변했고, 이에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지역 관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 만인 2020년 12월 대법원은 교육청의 정보공개가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정보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힘입어 2021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 ① ②학교명 ③사건개요 ④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⑤직위해제 여부 ⑥감사실시여부 ⑦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⑧징계 처리결과 ⑨고발 여부 ⑩피해학생 지원 여부 등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했다. 하지만 광주와 제주시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들은 또다시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해당 부처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정보 부존재'로 답변했다.

학교명이 가려진채로 받은 반쪽짜리 자료들을 취합한 결과는 과연 교육청들이 학교명을 지워버리고 싶어할 만했다. 지난 3년 동안 스쿨미투 후속조치는 상당히 부실했으며, 사건 은폐 축소에 가담하는 학교와 교육청의 민낯이 드러났다. 전국 스쿨미투 가해 교사 수가 무려 518명에 달했으며, 스쿨미투 신고 사건 가운데 피·가해자 분

리를 하지 않은 비율은 25.7%(113건)에 달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마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48.3%(250건), 피해학생 지원을 하지 않은 비율은 36.9%(191건)이었다. 교육청이 학교 쪽에 징계를 요구한 사안은 268건(51.7%)으로 받을 겨우 넘겼다.

가해교사 절반이 아직도 교단에 머무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니 '가해교사가 돌아왔다'는 학생들의 절규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힌 당시 학생들조차 알음알음으로 소식을 들을 뿐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학교성폭력 사건들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학교명을 모르니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와 관할당국에 따져 물을 수 없었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전혀 보호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지고 있다. 피해상황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학교, 가해자를 옹호하는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성폭력 처리가 2019년에 멈추었다. 2020년에 학교성폭력으로 인지한 사건이 없었다는 뜻이다.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경고일 것이다.

2018~2020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성폭력(스쿨미투) 처리현황

연번	실립 (지역)	학교명	지역	신고일	신고경로	사건개요(비유형)	피해/가해당 분리 여부	직위 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징계 판결 여부	징계처리 결과	퇴직 여부	경찰 고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1	사립경기	중	안산	2018.3.	트위터 게시	교사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부응	부응	부응	○	학교장 경고	부응	○	부응
2	사립경기	중고	병력	2018.3.	ONIC 게시	교사의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	○	○	부응	○	중징계6명, 경징계1명	○	○	○
3	사립경기	고	파주	2018.5.	언론보도	교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	○	부응	부응	중징계	○	○	부응
4	공립경기	중	안양과천	2018.6.	청와대 국민청원	교사의 언어적 성희롱	○	○	부응	○	중징계	부응	○	○
5	사립경기	고	안양과천	2018.7.	청와대 국민청원	교사의 폭언, 성희롱	○	○	부응	부응	중징계2명, 경징계 4명.	○	○	○
6	사립경기	중	광주하남	2018.9.	트위터 게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	○	부응	부응	견책	부응	○	○
7	공립경기	중	용인	2018.9.	국민 신문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부응	부응	부응	부응	가해자 공개사과	부응	부응	부응
8	공립경기	고	용인	2018.9.	민원	교사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부응	부응	부응	부응	학교장 경고	부응	부응	부응
9	공립경기	중	용인	2018.9.	ONIC	교사의 성차별적 발언	○	부응	부응	부응	계약해지	○	부응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
10	공립경기	중	남양주	2018.10.	트위터 게시	교사의 부적절 언어 사용	○	부응	부응	부응	학교장 경고	○	○	부응
11	사립경기	고	시흥	2019.4.	페이스북 게시	부적절 언어 사용	부응	부응	부응	부응	주의처분 (공식사과)	부응	○	부응
12	사립경기	고	수원	2019.4.	청와대 국민청원	성희롱 언행	○	○	부응	○	경징계	부응	○	부응
13	사립경기	중	용인	2019.5.	언론보도	교사에 의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	○	부응	부응	부응	소송 진행중	부응	○	○

[표2] 2018~2020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내역 (정치하는엄마들, 2021. 3)

3. 교육당국의 대책

4년 전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운동이었던 스쿨미투 이후에도 현장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코로나 감염병 시국에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극대화되면서 n번방 등 양상을 달리할 뿐 교원에 의한 학교성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안양지역 별말 초등학교 교장이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바로 파면 조치했으며,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경기도 성남시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하의를 입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처리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파악 이전에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통해 보더라도 교원(성인) 대 교원(성인) 간 성폭력은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가 이루어진데 비해 교원(성인) 대 학생(아동) 간 성폭력은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도 여전히 교권 보호가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원에 의한 학생 대상 폭력은 엄연한 아동학대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당국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제안1. 학교성폭력 제도 개선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보장

아동청소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인격체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동료시민이다. 학교성폭력 제도 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화하는 공허한 구호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

-제안2. 학교성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보장

학교와 교육당국은 공교육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 당사자와 보호자가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가해교사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경우를 간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했는지, 징계가 적절했는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와 조력을 충분히 했는지는 등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교육당국의 투명한 공개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회적 신뢰회복의 기본이다.

-제안3. 학교성폭력 온라인(비대면) 전수조사

학교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당국은 1년에 한 번 학교폭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항목에 학생 간 폭력과 더불어, 교사에 의한 신체적 언어폭력 등을 추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두루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앞에서 학교성폭력 여부를 묻는 전근대적 방식의 조사는 아동청소년이 학대 피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재발방지 역시 불가능하게 만든다.

4.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위한 지역과 학교 공동체의 연대

학생들은 이미 스쿨미투로 혁명을 시작했다. 목소리 냈던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때 학교에 희망이 있다. 이제 기성세대가 답해야 한다. 학교 성폭력 해결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계에 갇혀 부당한 권력에 침묵했던 시민들 스스로가 학교의 공공연한 아동 인권 침해를 견뎌온 존재였음을 각성해야 한다.

시민들은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해결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거두고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당국 그리고 지역사회를 이루는 모든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 연대만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지키는 답을 열 수 있다.

스쿨미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